

“2차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잔류 최소화·나눠먹기 지양”

김민석 총리 “예외 기준 원점 재검토 5극3특 특화산업 연계 합리적 로드맵” 2028년 ‘G20 정상회의’ 조기 준비체계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그는 “이번 2차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 일자리, 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 개혁의 일환”이라며 “1차 이전 시에 얻은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이전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극3특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이 실질적 성장 거점이 되도록 집적화하겠다”며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명했다.

김 총리는 한국이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그는 “올여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시작으로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와 2028년의 유엔해양총회,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지 차례로 주요 국제 행사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G20 정상회의는 18년 만에 우리가 의장

국을 맡게 되는 최고위급 정상 외교 무대”라며 “남은 시간은 불과 2년(으로) 길지 않다. 지금부터 긴장감을 갖고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우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며 “범부처적 협력을 통해 조기에 준비 체계를 갖춰 대한민국의 품격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도록 모든 행사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식 교육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며 “공모를 통해 대학과 기업 등 민간 교육기관을 수라학교로 선정하고 표준 커리큘럼에 따라 현장 중심의 실무형 한식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라학교”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한식 교육 기관이다.

이어 “우수 해외사재를 벤치마킹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동 추진하겠다”며 “(학교는) 한식 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외식산업과 농식품 수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기반으로서 요리 교육 프로그램 이상의 역할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주철현 “‘전남광주신재생에너지공사’ 설립”

통합특별시장 선거 핵심 공약 발표

개발·수익 환원 등 총괄 컨트롤타워



주철현 의원은 5일 “전남의 바람과 햇빛, 바다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시민의 소득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며 “재생에너지 개발부터 전력 판

공약의 핵심인 ‘전남광주 신재생에너지공사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수소, 에너지저장

매, 수익 환원까지 총괄하는 공공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 의원은 “전남·광주는 이미 국가 RE100 로드맵에서 40-6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지역”이라며 “전남이 멈추면 재생에너지 산업과 산업 전환 자체가 멈추는 구조인 만큼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전남·광주 전역에 분산된 발전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산업단지과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와 연계해 장기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RE100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과 수소 에너지 산업을 연계해 지역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설계된다.

주 의원은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은 대부분 외부 기업으로 빠져나갔다”며 “공사가 설립되면 발전 수익이 지역에 남고 시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사가 확보한 수익을 활용해 ▲전기요금 감면 ▲지역화폐 지급 ▲주민 배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에게 환원해 실질적인 소득 정책으로 연결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주 의원은 “전남은 이제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을 넘어 전력으로 산업을 키우고 시민 소득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기가 곧 돈이 되는 도시, 시민이 에너지 생산자가 되는 전남·광주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조인철, 대구서 ‘합동 국정감담회’

정가 프리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 4일 대구 서구 지역위원회(前 위원장 최규식)를 방문해 합동 국정감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대구 지역의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교통인프라 확충 및 생활환경 개선, 원외 지역에 대한 당 차원의 상시 지원 체계 마련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으며, 조 의원은 이를 경청하며 직접 화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의원은 “지역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대구와 광주를 잇는 이번 연대가 실질적 입법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광주와 대구의 협력이 공고해질수록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은 앞당겨질 것”이라며 광주·대구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규식 전 대구 서구 지역위원장은 “대구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이번 방문이 큰 힘이 된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진수 기자

민형배, 남구서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

“지역 미래 바꾸는 종잣돈 활용”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이 광주시민들과 만나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정부 특별지원금 20조원 활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민 의원은 지난 4일 광주 남구 송원대학교에서 열린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에서 “통합 이후 예상되는 재정 지원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시민 삶을 바꾸는 종잣돈이 될 수 있다”며 “자본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 의원은



민 의원은 또 “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만들고 이를 시민 삶과 연결하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청년·중장년·노년 등 전 생

애에 걸쳐 삶의 안정과 기회를 넓히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장기적 활용 방향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재정 운용 과정에서 점검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의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는 6일 해남군, 7일 광양시에서 열리는 ‘청년 해커톤’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변은진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